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낙농도 면밀히 검토해야



이 정 호
서울우유 지도부장

전국의 낙농가들은 우리 모
두를 위하여 조직된 협회를 묵
묵히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채
찍질하고 감싸주고, 뭉침으로
써만이 외부로부터 보호받고
소비자들의 애정 속에서 이 난
국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낙농가들의 유일한 전국 단체인
한국낙농우유협회가 출범한 지 어
연 16주년이 되었다.

연륜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
불과하지만 오늘의 한국낙농우
유협회는 실로 무겁고 힘겨운 짐을
떠맡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의 심각한 기근, 인접한 대
만의 구제역 발생 공포와 거대한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르는 축산물
의 소비 등은 결코 강 건너 불 구
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가 중국
을 먹여 살릴 것인가'의 저자인 미
국인 브라운 씨는 40년 후의 중국
인구는 16억이 되고, 식생활 개선
으로 대량의 곡물 수입국이 되며
그 양은 2억7백만 톤으로 이것은
'94년 세계 총수출량인 2억톤과
맞먹는 엄청난 곡물이 될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가끔 지상(紙上)에 제기되는 식
량의 무기화는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생
존의 기본'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풀
사료를 이용하여 우유와 고기를 생
산하는 낙농의 미래는 어떠한 것이
며, 우유소비자가 이미 생활화된 우
리 입장에서 볼 때 대내·외의 시
련 속에서 어떻게 낙농을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문제는 심각한 사안이
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낙농업은 그 특성상 선진국일수
록 서둘러 그 지원정책을 추진하였
고, 그것도 모자라 낙농인들은 생
존의 수단으로 생산자단체를 운영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국낙농
협회는 물론이고 심지어 낙농정치
연맹이란 조직체까지 있어 회비를
납부하고, 낙농인의 권익을 대변하
면서 실리를 추구하고 있으며, 때
지가 주종을 이루는 중국의 경우도
중국낙농협회가 있어 낙농가들의

의견을 집약시키고 있다.

우유가 부족하고 낙농이 호황일
때는 어느 조직이나 단체의 역할이
눈에 띄지 않게 마련이다.

1980년대 서울우유는 우리 나라
낙농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의욕
적으로 제시한 경험이 있다. 낙농
가들에게 금기시 되던 '계획생산·
생산조절'이란 것이 금년초 모유업
체에서 실시된 것을 연상하면
1984년에 부르짖은 낙농진흥법은
그때 골격을 세우고 부분적인 보수
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라도 낙농가들은 우리의 문
제점을 연구하고 착실히 개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철저한
낙농 프로의식으로 무장하여야 낙
농을 지속할 수 있다.

또한 협회는 취약한 운영 조직
과 재정 압박 속에서도 굳건히 일
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국내 정책뿐
만 아니라 해외 낙농도 면밀히 조
사하여 좀 더 과감히 여론을 조성
하고 대외홍보에 주력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 본다.

한국낙농우유협회의 회원인 전
국의 낙농가들은 우리 모두를 위하
여 조직된 협회를 묵묵히 재정적으
로 지원하고, 채찍질하고 감싸주
고, 뭉침으로써만이 외부로부터 보
호받고 소비자들의 애정 속에서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